

MLB MVP 최종 후보, 모두 PS 탈락팀 소속...역대 최초

전미야구기자협회(BBWA)가 8일 을 시즌 아메리칸리그와 내셔널리그의 MVP, 사이영상 등 각 시상 부문의 최종 후보를 발표했다.

아메리칸리그의 MVP는 '이도류' 오타니 쇼헤이(에인절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마커스 시미언이, 내셔널리그에서는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샌디에이고)와 브라이스 하퍼(필라델피아), 후안 소토(워싱턴)가 최종 후보에 선정됐다.

주목할 점은 이 선수들이 속한 소속팀의 성적이다. 올해 양대리그 MVP 최종 후보에 오른 6명의 소속팀은 모두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MLB 네트워크에 따르면 양대리그 MVP 최종 3인의 소속팀이 모두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그동안의 MVP 투표에서는 팀 성적이 보이지 않는 기준이 되곤 했다.

2002년에는 미겔 테하다가 소속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20연승 활약 속에 개인 성적이 더 좋았던 알렉스

로드리게스를 제치고 아메리칸리그 MVP를 수상했다. 메이저리그 최고의 스타 마이크 트라웃 역시 2016시즌 개인으로는 최고의 활약을 선보였으나 팀 성적 부진으로 인해 어렵게 MVP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6년의 트라웃, 그리고 2017년의 지안카를로 스탠튼이 5할 미만의 소속팀 승률로도 MVP를 수상하면서 조금씩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이제는 팀 성적과 개인의 활약을 별개로 놓고 투표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올 시즌 MVP 최종 3인은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MVP는 기자단 투표 결과로 선정된다. 투표는 이미 진행됐고, 결과는 오는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AL 사이영상 최종 후보엔 토론토 로비 레이와 뉴욕 양키스 게릿 폴,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랜스 린이 올랐다. NL 사이영상은 맥스 셔저(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잭 휠러(필라델피아), 코빈 번스(밀워키)가 경쟁한다.



▲ 아메리칸리그 MVP에 최종 후보로 선정된 에인절스의 오타니 쇼헤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와 마커스 시미언(좌측부터), 사진=nbocchicago.com / 타운뉴스DB

한국 축구, UAE에 신승 ...월드컵 본선 진출 유력



▲ 지난 11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UAE)전에서 황희찬의 페널티킥 선제골이 터진 뒤 기뻐하고 있는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들, 사진=대한축구협회

한국 축구대표팀이 아랍에미리트(UAE)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11일이하 한국시간)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UAE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5차전 홈 경기에서 황희찬의 페널티킥 결승골로 1-0으로 승리했다.

이날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은 3번이나 골대를 맞혔다. 전반전에선 조규성(김천)과 손흥민(토트넘)의 슈팅이 연달아 골대를 맞고 나오고, 후반전 때도 손흥민의 헤딩슛이 크로스바에 막히는 등 골 운이 따르지 않았다.

이로써 한국은 3승 2무로 무패행진을 이어가며 승점 11점으로 조 2위를 유지하며 최종예선의 반환점을 돌았다.

한국과 함께 A조에 속한 이란은 같은 날 이란은 11일(한국시간) 레바논 사이디아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5차전 레바논과 경기에서 2-1로 이겼

다. 이란은 4승 1무 승점 13을 기록, 조 선두를 지켰다. 같은 날 아랍에미리트를 이긴 조 2위 한국(승점 11)과 승점차는 2점을 유지했다.

반면 조 3위로 한국을 추격하던 레바논은 1승2무2패 승점 5에 그치면서 한국과의 승점 차가 6점으로 벌어졌다. 최종예선 전체 일정을 가운뎃절반이 끝난 상황에서 이란과 한국의 본선 직행은 더욱 유력해졌다.

이란은 이날 레바논에게 털미를 잡힐 뻔 했다. 전반 37분 레바논의 수니사드에게 선제골을 내준 뒤 후반 종료 직전까지 0-1로 끌려갔다.

하지만 후반 추가시간에 극적으로 2골을 뽑아 경기를 뒤집었다. 후반 46분 사르다르 아즈문의 상대 수비 실책을 틈타 동점골을 터뜨렸다. 이어 경기 종료 직전인 후반 50분 아흐마드 누몰라히가 극적인 역전 결승골을 성공시켜 힘겹게 승점 3을 따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17일 이라크와 월드컵 최종예선 A조 6차전을 카타르 도하에서 치른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8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AARP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론
한의원,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학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